

12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CD금리 69bp 급락 `2000년 이후 최대 하락폭`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루 사이에 69bp(1bp=0.01%p) 하락하며 4.7%대로 내려옴 11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69bp 내린 4.75%를 기록했으며, 69bp의 하락폭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일중 변동폭임. 한국은행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100bp 인하한 것이 CD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뉴욕증시 급락반전 [다우: 8,565.09pt (-2.24%)]	개장전부터 부진한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데다, 자동차 구제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영향을 미쳐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반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96.33포인트(2.24%) 하락한 8,565.09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57.60포인트(3.68%) 급락한 1,507.88로 장을 마쳤음.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5.65포인트(2.85%) 떨어진 873.59를 기록했다.
자동차 구제안 상원 부결 공포감 확산	자동차 구제안이 전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월가의 투자자들은 상원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음. 이같은 영향으로 GM과 포드의 주가가 10%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음. 시장에선 공화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통과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경계심리가 확산.
경기지표 부진 다시 확인..투자심리 급랭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대비 5만 8,000명 증가한 57만 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인 52만 5,000명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음.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무역적자도 전월보다 1.1% 증가한 572억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545억달러를 상회했음. 원유수입 증가와 대(對)중국 무역수지 악화가 영향을 미쳤음.
가계부채 첫 감소..소비 위축 시그널로 해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올 3분기 미국의 가계부채가 13조 9,100억 달러를 기록, 전분기 대비 연율기준으로 0.8% (300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가계의 부채가 줄어든 것은 소득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최근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후퇴(recession)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이같은 지표가 경기위축 시그널로 해석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유가 10%대 폭등 [WTI: \$47.98 (+ \$4.46)]	부진한 경기지표로 달러가 주요 통화에 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석유 수출국기구(OPEC)가 내주 모임에서 감산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10%대의 폭등세를 나타냈음.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감소 여파로 최근 5개월 연속 급락하며 40달러선까지 밀렸음.
EU 3분기 경상수지 260억유로 적자	올 3분기 유럽연합(EU)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60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11일 발표.
범유럽 경기부양책 합의할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EU 정상회담이 11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범유럽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 도입 등. 문제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재정적자만 늘린다면 부정적이라는 점.
中 7년만의 수출감소, 성장의 최대 걸림돌	중국이 충격적인 수출감소로 내수확대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상황. 10일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장축진을 위한 내수확대를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과 세계에서 변화를 시도. 환율보다는 수출증치세 등 세제측면에서 접근이 유력.
日 나홀 연속 ↑·中 악화된 경제지표 영향 ↓	11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 일본 증시는 미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혼다자동차 등 대형주들의 주도로 나홀 연속 상승 마감. 반면 중국증시는 악화된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아 2% 이상 미끄러짐.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2% 전망	내년 우리 경제가 연 2% 성장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 올해 연간 성장률은 3.7%로, 당초 전망치(4.6%)보다 대폭 하향 조정.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올해보다 크게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로 가면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성장모멘텀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두산주류 매각, 롯데-GS 등 10여곳 '참여의향'	두산 주류사업부 매각에 국내 대기업인 롯데그룹과 GS그룹 등 10여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 두산주류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12일 입찰제안서 마감을 하고 다음주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
IPTV, 상용화기념식 앞두고 지상파와 합의	12일 열릴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을 앞두고, IPTV 서비스 업체들이 지상파방송사와 콘텐츠 재전송에 합의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료 적정기준을 놓고 오랜시간 난항을 겪던 협상이 해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IPTV 상용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